홀로스평생교육원
심층 의식으로부터 깊은 지혜를 이끌어 내는 통찰력게임

• 발행: 이원규 • 편집: 김연주
• 주소 : 서울 사무실: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68 (청룡동) 혜남빌딩 4층
함양 연수원: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53-74
• 전화: 02) 747-2261 • 팩스: 02) 747-3642 • 이메일: cpo@herenow.co.kr

통찰력게임 소식지

2018년 6월 (제 14호)

마음에 샛길을 마련하라

하나의 사물을 지속적으로 보다보면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오히려 거기서 점차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즉 하나의 사물을 계속 보면 그것이 가진 형태나 질감이 점차 바뀌거나 흐릿해지거나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변함없는 한 가지'에 오래 머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것'에 주의를 계속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속 눈을 깜빡이면서 사물을 보아보십시오. 또는 계속 그 사물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려 하며 거기에 주의를 주면서 집중해보십시오. 그러면 좀더 오래 선명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대상을 새롭게 하는 물리적 행동이며, 새로운 측면을 찾아 나서는 것은 대상을 심리적으로 새롭게 보는 행동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특성을 통찰을 일으키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밑바닥에는 절실한 주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표면에서는 자꾸 옆길로 새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빈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길에서는 통찰이 나오기 힘듭니다. 길에 샛길이 많고, 빈틈이 주어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찰력게임에서는 무의식에 침투할 만한 강렬한 열망으로 주제를 심층에 심어놓고, 이제 다양한 카드의 문장과 단어들을 통해 샛길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신선한 주의를 계속 주제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틀 속에 갇히게 하여 지루함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좌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빈틈을 열어놓기, 또는 샛길을 많이 만들기, 이것이 통찰을 향한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이원규[1] 두손

목차

다가오는 강좌 소개 / 2쪽
딜러, 마스터 동정動靜 / 3쪽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책《이노베이터의 조건》/ 4~5쪽

1)《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관성을 넘어가기》 저자, 통찰력게임 개발 및 제작.

다가오는 강좌 소개

● 제 21차 통찰력게임 워크숍



통찰력게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미세하게 올라오는 무의식적 신호를 알아채고 통찰로 이어지게 하며, 그 통찰을 실현시킬 힘을 얻게 합니다.

· 일시: 2018년 6월 9일(토) 오후 2시 ~ 10일(일) 오후 5시
· 장소: 홀로스 함양연수원 (최대 6명)
· 신청하기: PC에서는 여기를 클릭!
스마트폰에서는 여기를 클릭!

● 제 18차 통찰력게임 딜러교육



통찰력 시범게임을 직접 진행하고 키트 판매도 할 수 있는 '본게임 안내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재수강은 무료이며(자기변형게임 딜러도 가능), 미니게임 안내자 교육도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참가비: 무료 (단, 키트 5개 이상 신규 구입자에 한함, 35만원)
· 신청하기: PC에서는 여기를 클릭!
스마트폰에서는 여기를 클릭!

● 제 8차 통찰력 미니게임 안내자 교육



통찰력 미니게임은 통찰력게임의 퀵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것이며, 3~4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일시: 2018년 7월 14일(토) 오후 1시 ~ 6시
· 장소: 서울 강의장
· 신청하기: PC에서는 여기를 클릭!
스마트폰에서는 여기를 클릭!



통찰력게임 동정動靜

*통찰력게임 마스터/딜러분의 근황을 알려주시면 (진행 강좌나 책 발간 등) 본란에 게재해드리고자 합니다. 편집부로 연락 주십시오. cpo@herenow.co.kr

● 딜러모임 심화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러모임 심화반 과정 4회차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내자 교육을 받은 분들 중, 상담이나 코칭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게임 진행이 약한 분들을 위해 게임을 실제 진행할 수 있도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심층교육으로, 딜러 역량강화, 케이스 스터디, 참가자 모집 등의 전체적인 진행을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딜러를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이 주어지며, 시범게임과 1일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심화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차수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 제 7차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토) 미내사클럽 서울강의장에서 미니게임 안내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마스터 • 딜러분들의 6월 게임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마스터/딜러분들도 7월 게임 일정이 정해지면 사무실로 알려주세요)



- 박은경 딜러
- 자기변형 시범게임 6월 16일 (화) 오후 2시~5시 (조정 가능, 개별문의 요망)
- 장소 : 수원 영통, 경기 분당
- 문의 010-2901-0165



- 이혜영 마스터
- 통찰력게임 시범게임 6월 14일 (목) 오전 10시~오후 1시
- 통찰력게임 워크숍 6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 통찰력게임 딜러교육 6월 24일 (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서울 김포공항 쪽
- 문의 010-5323-4893



통찰은 어떻게 일어날까요?(14) 피터 드러커

대도시의 변화, 통찰의 마음

아래 글은 피터 드러커의 《이노베이터의 조건》에 나오는 글입니다. 앞으로 대도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점차 옛날의 성당과 같이 축제일에만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시적인 중심점이 되고, 이를 통해 지식의 중심점 역할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평상시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애쓰는 마음으로는 통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시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텃밭을 가꾸고, 마음을 비워놓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주제를 만났을 때는 통찰력게임이나,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모든 자원이 모여, 새로운 통찰을 통한 해결책의 폭발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을 이루는 대도시와 같이 지식과 통찰의 중심지인 내면의 성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편집자 주).

대도시의 쇠퇴

정보는 그 초국가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초국적'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특히 화폐와 신용에 기초한 '심벌 경제symbol economy'는 이미 비민족적 공동체 혹은 초국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정보 기술로 인한 사회적 영향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대도시에 불어닥친 어떤 변화이다. 20세기의 대도시는 19세기의 위대한 혁신, 즉 기차, 전차, 자전거, 자동차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일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운송 능력 덕분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마찬가지 논리로, 21세기의 대도시는 20세기의 위대한 혁신, 즉 아이디어와 정보에 의해 사람들에게 일을 가져다주는 혁신적인 능력에 의해 대부분의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정보가 이동하고 있다. 이미 도쿄,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20세기형 대도시는 그 유용성을 상실할 만큼 비대해졌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도시 안으로 운송하는 것도, 혹은 도시 박으로 운송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전철이나 버스에 마치 짐짝처럼 실려 일터로 향한다. 출퇴근길에는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사람이 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신용카드의 청구 업무, 건축 설계 작업, 보험 증권 및 보험 청구의 처리, 혹은 의료 기록 작업과 같은 분야의 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층 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소규모 위성 도시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전에 기차, 자동차, 비행기 등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팩스, 전화, 텔렉스, 쌍방향 화상 시스템 등이 대신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어났던 부동산 붐과 그에 따른 고층 빌딩의 폭발적 증가는 대도시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도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마도 대도시의 쇠퇴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대도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노베이터의 조건》(피터 드러커 지음, 이재규 옮김, 청림출판), 344~345쪽

